

예장 통합, 개회예배로 총회 시작... “복음으로 하나 됨 이루자”

15일 도립교회서 사흘간 일정 개막...
부총회장 권위영 목사 개회예배 설교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제111회 정기총회가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도립교회에서 막을 올렸다. 오는 17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는 서울강서노회를 제외한 전국 68개 노회 총대들과 총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총회 주제는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다. 첫날 개회예배 설교에서 제111회 부총회장 권위영 목사는 “복음은 단순히 천국 티켓을 거머쥐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한국교회와 예장통합 교단이 살아갈 숨결이자 호흡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권 목사는 저출생 위기 속 다음세

대 교육의 중요성을 짚으며 “평생 교회를 지켜온 어르신 세대를 끝까지 책임지고, 미래 리더인 목사 후보생 지원과 다져여가는 구역장-소그룹 활동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기도’ 그리고 ‘예큐메니컬적 화해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교회의 하나 됨은 행정적 아이디언아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아닌 교회의 본질”이라며 “세속적 이념과 진영논리, 교권의 야욕으로 총회와 교회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을 거둬내야 한다”고 당



예장 통합 정기총회 현장의 모습. ©노형구 기자

부했다.

또한 “견해가 다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으로 묶인 공동체라면, 옆 자제의 아픔에 가슴이 떨리는 것이 정상”이라며 “내년 평양 대부흥 운동 120주

년을 앞두고 철저한 회개와 부흥의 열정이 재점화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권 목사는 “본질적인 일에는 일치, 비본질적인 일에는 자유,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개혁주의 격언

을 덧붙이며, “비난과 격려의 소리 모두를 경청하는 리더십으로 섬기겠다. 십자가의 정신으로 돌아가 희생과 사랑으로 교단의 스펙트럼을 안고 완벽한 하나 됨을 이루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예장통합 제111회 총회에선 현장 목회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교단 법적 통일성을 마련하기 위한 안건들이 다뤄질 전망이다. 우선 이번 총회에 상정된 대표적인 현안안으로는 △은퇴목사 처우 개선 △이북노회 별도 권역 분리 △목회자 정년 △노회 폐회 중 부목사 청빙 △함종직 시무 연한 조정 등이 꼽힌다.

특히 장기노회가 폐회한 이후 부목사 청빙 등 시급한 청원 사항을 다룰 수 없었던 기존 교단 규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치부가 나선다. 정치부는 현행 현

상상 노회 폐회 중 청빙 절차 대상에 ‘부목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 현의안을 제출해 개교회의 원활한 목회 사역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함종직의 시무 연한 규정을 한층 정밀하게 가다듬는 현의안도 상정된다. 현행 헌법이 함종직 시무 연한을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설정함에 따라 발생했던 생년월일별 은퇴 시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이를 ‘70세가 끝나는 날까지’로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다뤄진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만 나이 기준 적용의 법적 통일성이 확보됨은 물론, 특정 시점에 함종직이 일시적으로 동시 은퇴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지교회와 지역 공백 현상 역시 유의미하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형구 기자

예장 고신, 제76회 총회 “위로 임하는 총회 되길”

15일 고려신학대학원에서 드려



예장 고신총회(총회장 최성은 목사)가 15일부터 18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6회 정기총회를 ‘위로’(고린도후서 1:3-4)

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첫날 개회예배는 최성은 목사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장성한 장로(부총회장)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최 목사가 성경봉독을 했으며 고신 권사합창단의 찬양이 이어졌다.

이어 김상석 목사(전임 총회장) 사진가 ‘위로’(고린도후서 1:3-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 목사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개인과 가정, 교회와 총회, 나라와 민족이 감당해야 할 환란과 고난이 많다. 갈등과 대립이 깊어지고 공동체가 분열될 때, 사람의 힘이나 능력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정죄하고 비방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곁에 오셔서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다”고 했다.

이어 “사도 바울은 큰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의 위



예장 고신총회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제76회 정기총회를 ‘위로’(고린도후서 1:3-4)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다니엘 최 기자

로는 막연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한 확실한 위로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다.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듯이, 우리도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야 한다.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서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성찬예식을 드렸으며 정태진 목사(직전총회장)의 축도로 총회 개회예배는 마무리됐다. 다니엘 최 기자

예장 합동, “총신대 신대원생 전원 장학금 지급” 청원

박성규 총장 “신학생 한 명 돕는 것, 하나의 교회 세우는 일”

총신대학교가 신학대학원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총신대 박성규 총장은 예장 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제111회 정기총회 둘째날인 15일 오후 회무에서 교단의 목사 지원생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며, 교단의 미래를 위해 총신대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신학대학원생 전원 장학금 지급’ 시행을 청원했다. 박 총장은 “한 사람의 목회자 후보생은 미래 담임목사

이기에 매우 중요하다”며 “목회자 후보생이 부족한 이 시점에 신학대학원생은 전원 장학금을 주어 양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회와 교회가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키워내야 한다. 노회는 소속 목회자 후보생이 소속 교회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여부를 확인하고 부족분은 노회가 지원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박 총장은 ①‘1노회 1신학대학원생 더 보내기 운동’ 시행 ②사당

가속사 1호실 기증 운동 ③10만 재정 후원 운동 하락 ④총회 직영 대학인 총신 대학교에 총회 예산 10퍼센트 재정 지원을 청원했다.

③은 교단에 속한 10만 명의 성도가 매월 1만 원을 총신대에 후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자는 것이다. ④에 대해 박 총장은 “한 사람의 신학생을 돕는 것은 하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며 “그러므로 매년 총회 예산에 10퍼센트를 지원해 주시길 청원한다”고 했다.

총대들은 재정과 관련된 청원은 재정부로 보내기로 했고 나머지 청원은 보고로 받기로 했다. 이는 청원을 받아들



총신대 박성규 총장이 예장 합동 제111회 정기총회 둘째날인 15일 오후, 총신대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여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과는 별개로 교단 관계자는 전했다. 김진영 기자

예장 백석, 제49회 총회 개회... “목자의 손으로 함께하시는 주님”

천안 백석대학교교회에서 오는 16일까지 진행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측이 14일 천안 백석대학교교회에서 제49회 정기총회를 개회했다.

이승수 부총회장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에선 장로부총회장 고기성 장로가 기도했고, 회의록서기 김응열 목사가 성경봉독을 한 후 총회장 김동기 목사가 ‘목자의 손을 합입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김 총회장은 “우리 교단도 처음에는

미약했다. 하지만 전능자의 도움으로 오늘날의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백석의 시대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 총회장은 “설립자 장종현 목사의 헌신과 성도들의 기도로 결실을 맺는 백석의 시대 속에서, 교단과 학원, 더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가길 소망한다”면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목자의 손으로 우리 미래와 함께하시는 가운데, 개혁주의생명신학으로



예장 백석 제49회 정기총회가 천안 백석대학교교회에서 개회했다. ©예장 백석

민족과 세계를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전했다.

김 총회장은 제48회기를 마무리하며

공로자들을 치하했다. 특히 교단 통일을 주도한 예장 백석대신 강안실 총회장에게 공로패를 전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규환 직전 총회장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친 후 이어진 성찬식은 증경총회장 이종승 목사가 집례했다.

이후 총대들의 윤리강령 낭독으로 제49회 정기총회 회무를 시작했다. 백석총회는 첫날 각 부서 보고에 이어 후보추천위원회와 선관위 보고를 통해 신임원을 인준한다. 총회는 오는 16일까지 이어진다. 김진영 기자

JESUS LOVE

마음을 전하는 단체 선물

교회 단체 상품 주문 문의

볼펜 · 선물세트 · 행사 기념품

온라인 주문 및 단체 문의

02-723-1335

www.withjesuslove.shop



QR로 바로 주문

UV 장우산

고급 볼펜

세라믹 텀블러

말씀 머그컵